

목포시, 근대문화자산 집대성 아카이브 구축 완료

11월부터 홈페이지에 근대건축 3D모델링 등 공개 방문하지 않고도 목포근대역사공간 가상 체험 가능

목포시가 근대문화자산을 집대성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시는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의 일환인 '목포 근대문화자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통해 인물, 역사, 문화, 유산 등 목포의 근대 자료를 총망라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재)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주관하고 총 3개사가 참여한 지난해 8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추진해온 이번 사업은 지난 20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성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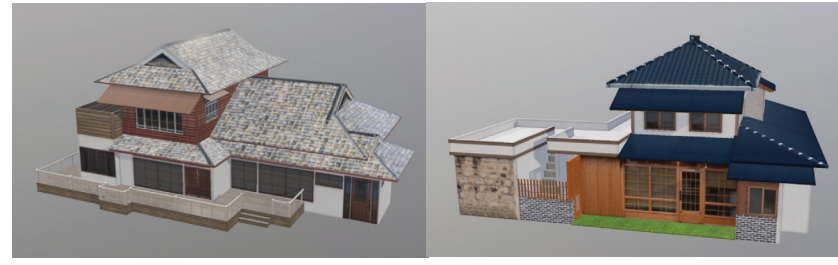
아카이브는 오는 11월부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문화자산 아카이브' 홈페이지(www.mokponet.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으로 목포시 문화관광 홈페이지(www.mokpo.go.kr/tou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용역은 목포 근대문화자산 기초조사부터 건축물 실측조사 및 3D모델링, 디지털 자료화 등 3개 분야로 진행됐다.

기초조사는 자료 수렵에만 그치지

않고 의미있는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으로 연결시켰다. 목포 근대에 관한 인문학적 자료, 고사진, 고지도, 신문기사, 건축물 등 연관된 모든 자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도록 했다. 예를 들면 극작가 김우진을 검색하면 가족 관계, 작품 활동, 연인 윤심덕 등을 고증하는 사료들이 함께 제공한다.

이와 함께 보존상태가 우수한 목포 근대 건축물들은 실측을 통해 3D모델로 제작하고, 이를 3D지도에 입체적으로 구현했다. 디지털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방문하지 않고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또 목포 근대문화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은 물론 관리



자와 사용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식 정보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 새로운 자료, 변화상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아카이브 관리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는 우수한 근대역사자산들을 갖추고 있음에

도 그동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아카이브 구축으로 대부분 사료들을 정밀하게 정비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집대성한 자료들이 우리나라 대표 근대도시인 목포의 정체성을 부각하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함평자동차극장'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 '우수' 선정

민선7기 함평군의 대표 브랜드인 '함평자동차극장'이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상의 함평군수가 지난 22일 전라남도 의회에서 열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관광산업 육성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함평자동차극장'을 주제로 직접 발표에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지자체의 우수 정책을 널리 알리고 지역 간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전남·전북 내 기초 자치단체가 참가해 각 지자체의 우수정책에 대해 단체장들이 직접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 군수는 올 초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에 개장해 지역의 핵심 관광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함평자동차극장'을 소개했다.

군은 나비축제를 통해 축제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지역경제 부가가치 창출에는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체류형 관광지' 개발에 나섰다. 이에 휴지기 없이 함평엑스포공원을 활용, 문화 콘텐츠를 접목해 함평자동차극장을 건립했다.

자동차극장은 지난 1월 개장 이래 9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1만 2천대를 돌파하며 2억3천여만원의 입장 수입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고 있다.

나아가 함평천지길,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인 '에듀-테인먼트 파크' 등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함평'을 완성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군수는 "자동차극장은 영화 관람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과 행사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장소로도 활용되며 지역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성공적인 지방자치 우수정책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김준성 영광군수, 장암산 알프스 산림욕장 현장 점검

사업비 12억 투입 다음달 중 개장 예정...가족 놀이·휴식 가능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22일, '장암산 알프스 산림욕장' 현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현재 군은 묘량면 삼호리 장암산 일원 10ha에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잔디광장, 전망대, 연못, 화장실, 주차

장, 테크로드, 편백산책로(1.5km), 디스크골프(9홀), 고카트 체험장(1km) 등을 조성하여 '영광 장암산 알프스 산림욕장'을 오는 11월 중에 개장할 예정이다.

'장암산 알프스 산림욕장'에는 50년

생 편백산책로와 해피 설치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디스크 골프장 9홀과 이모빌리티 임도를 이용한 전기 고카트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방치기, 오자미 놀이 등을 설치하여 가족 놀이와 휴식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알프스 초원 같은 숲속 잔디광장을 비롯하여 서해바다와 영광들녘 등 탁 트인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휴식과 즐거움, 그리고 이국적인 경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적인 산림휴양레포츠 파크로서 면모를 갖추 예정이다.

김준성 군수는 "아름답고 건강한 숲에서 군민과 관광객 누구나 행복하고 안전한 숲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암군,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가동

영암군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5일부터 연말까지 부모모니터링단 활동을 진행한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공무원 중심의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달

리 수요자인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군은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부모 1명과 보육전문가 1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올 연말까지 관내 어린이집 15개소

를 대상으로 부모 단원은 관찰 비중이 높은 ▲급식·위생관리 영역을 보육전문가 단원은 문서와 교직원 면담 비중이 높은 ▲건강·안전관리 영역으로 구분해 4개 분야 15개 핵심지표를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공직자, 양배추 농가 돕기

공무원 사주기 운동 개최...749명 동참 475만원 어치 구매

무안군 공직자들이 양배추 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들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무안군은 지난 22일 군청에서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 양배추 소비촉진 공무원 사주기 운동'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는 양배추 생산과잉으로 8kg 상품 가격이 전년대비 70% 이상 하락하고 포전거래도 끊겨 양배추 생산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농민들은 다음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산지 폐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은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749명의 공직자가 동참해 8kg 1량당 5,000원의 가격으로 총 950량 475만원어치를 구매해 농가들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앞으로 군은 양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전남도와 함께 7억 8000만 원을 긴급 투입해 105ha 면적의 산지 양배추에 대해 산지 폐기 등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해외 수출 물류비 지원과 관측행사 등 양배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와 양배추 가격 폭락으로 이종고를 겪고 있는 양배추 농가들을 돕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안군은 유관기관, 도시지역 지자체 등과 연계해 양파 사주기 운동을 펼치는 등 지역 농가들을 돕기 위한 관측행사를 적극 펼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내살이 행복한 광산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